OECD, 2014년 기업가정신 보고서 발표

Ⅰ. 추진 배경

□ 기업가(entrepreneur)라는 표현은 18세기부터 일부 사용[1]되었으나, 1930년대 슘페터[2]에 의해서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이 일반인에게 알려짐

□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은 연구자 또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추상적 개념이므로 이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수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

※ 글로벌창업모니터(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)는 3.5년 미만 기업들의 활동인 초기단계기업활동지수(TEA : Total Early-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)를 사용하고 있으나, 기존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

□ OECD는 OECD-Eurostat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(EIP)을 통해서 2006년부터 기업가정신 관련 다양한 지수를 개발, 발표하고 있음

○ 3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과(entrepreneurial performance, 성과지표)와 결정요인(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, 조건지표) 등을 나타낼 수 있는 20여개 이상의 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

※ 성과지표(performance indicators) : 창업(기업규모별), 고성장기업, 기업진입/탈퇴, 기업생존율, 다양한 혁신지표, 기술파급효과정도 등

※ 조건지표(condition indicators) : 기업가정신 교육, 재정접근도, 조세/인센티브, 혁신과 연구개발, 기술접근도, 파산환경, 행정부담 등

Ⅱ. 주요 내용

1. 기업가정신 일반 동향(Recent Developments in Entrepreneurship)

가. 새로운 기업 생성(New Enterprise Creations)

○ 창업은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로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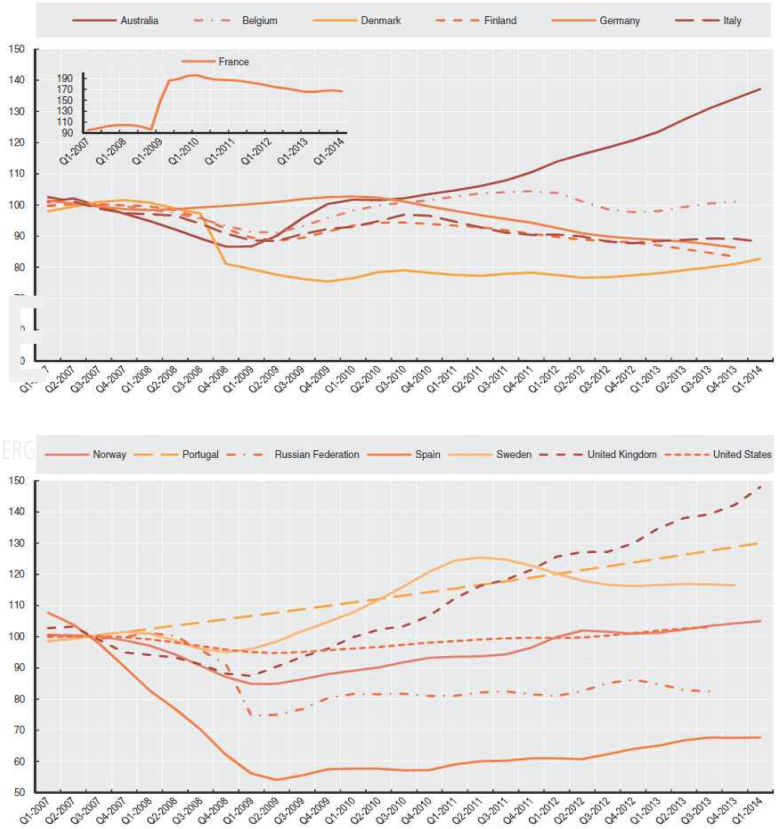
1) 깡띠옹(R.Cantillon)은 상업일반이론(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eneral, 1755)에서 기업가(entrepreneur)를 위험을 부담하는 자이며 기업가의 소득은 토지임대료나 임금이 아닌 이윤으로 구성된다고 함

2) 슘페터(Shumpter)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과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

- 덴마크, 노르웨이 등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, 호주, 영국,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.

- 특히, 프랑스는 2009년 1월 창업 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으로 개인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였음

< 새로운 기업 창업 동향(2007년을 100으로 기준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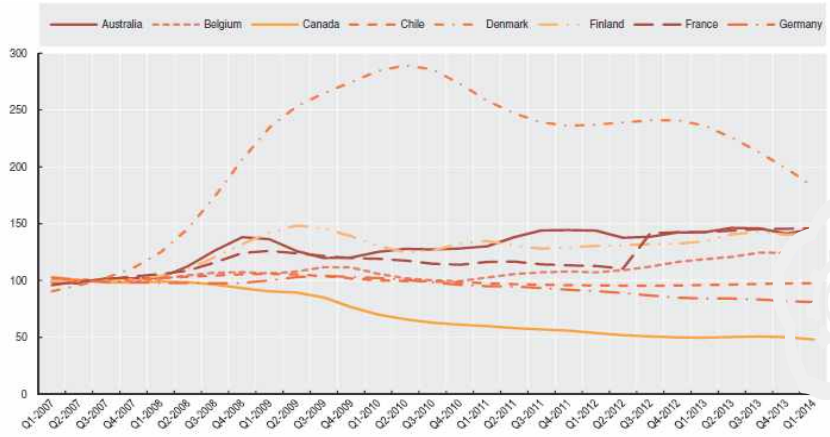
나. 기업도산(Bankruptcie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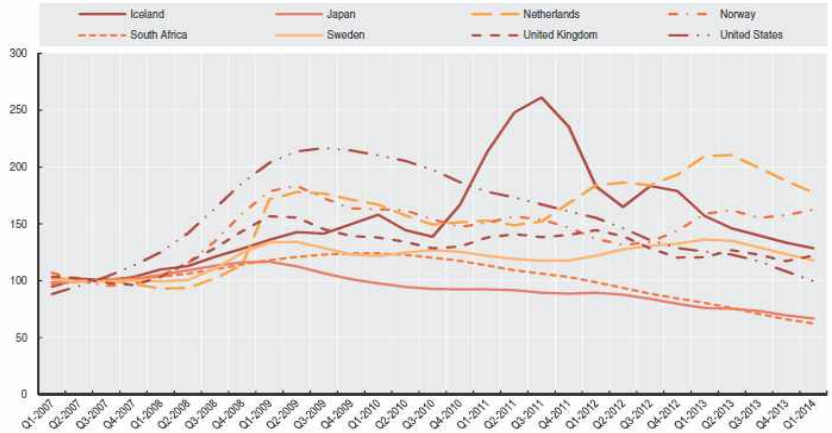
○ 국가별로 파산법(bankruptcy laws)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도산을 국가별간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.

○ 영국, 호주 등 창업이 활발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기업도산도 활발하게 발생하므로 기업도산만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하다고 볼 수 없음

○ 미국, 덴마크 등은 금융위기 이후에 폐업이 급증하여 2009년, 2010년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, 최근 폐업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, 캐나다, 일본 등은 2007년보다 낮은 폐업 추세를 보이고 있음

<국가별 폐업(bankrupcies), 2007년을 100으로 기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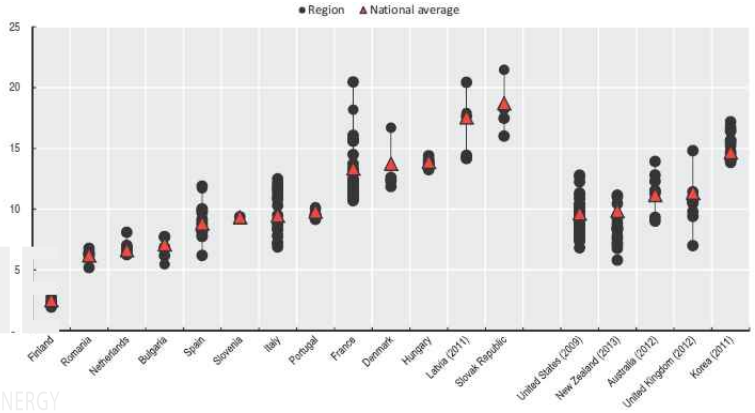


다. 지역별 창업·폐업 추이(Regional business demograph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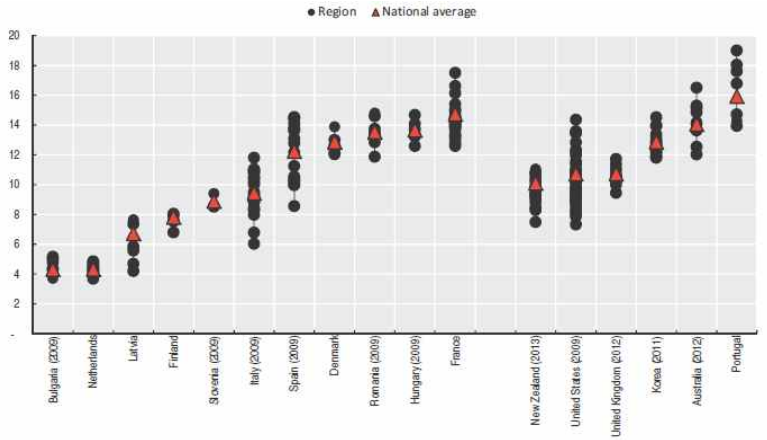
○ 스페인, 이태리, 프랑스, 미국, 영국 등은 국가내 지역간 기업 창업·폐업률이 약 10%까지 차이가 나기도함.

○ 수도(capital)와 국가평균을 비교해볼 때, 기업창업률은 수도지역이 높게 나타나고, 기업폐업률은 수도지역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기업창업률(Enterprise birth rate at the regional level, 2010년)>



<기업폐업률(Enterprise death rate at the regional level, 2010년)>



라. 자기고용(self-employment)[3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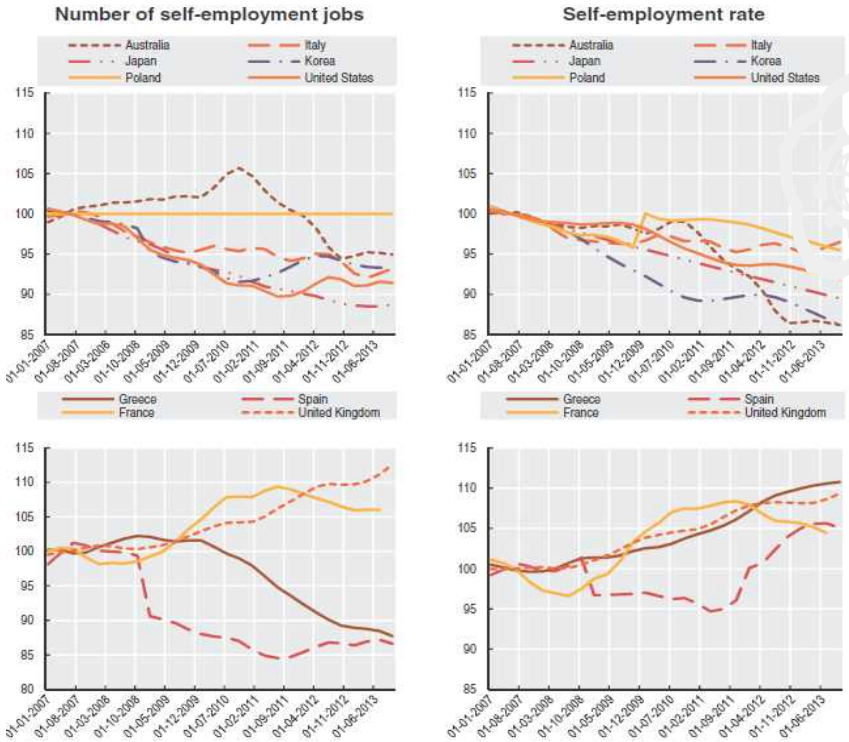
○ 자기고용 추세는 금융위기의 영향과 이를 극복하는 메카니즘, 규제 환경 등에 따라서 국가별로 매우 상이함

○ 호주, 한국, 일본, 미국 등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매우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그 일부는 계약고용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

○ 스페인, 그리스 등의 자기고용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으나,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. 특히, 스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

○ 멕시코, 영국, 프랑스 등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자기고용이 증가하였으며, 프랑스는 개인창업 절차 개선으로 개인창업이 빠르게 증가함

<자기고용일자리(self-employment jobs), 2007년을 100으로 기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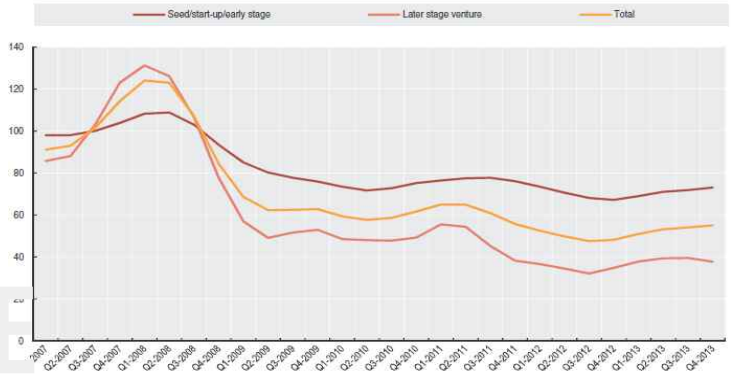
3) self-employee are defined as those who own and work in their own business(OECD)

마. 벤처자본(Venture Capital)

○ 유럽에서 벤처자본은 금융위기시 최고수준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벤처자본은 2008년보다 약 절반 수준*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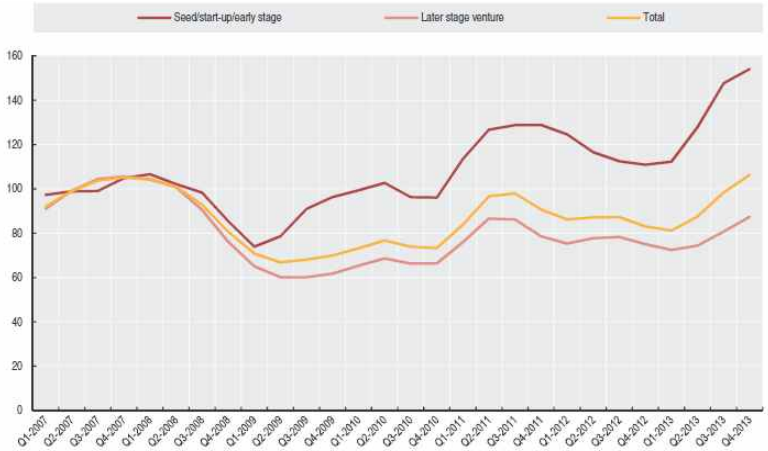
* 창업·초기단계 벤처자본은 약 30% 감소, 이후단계 벤처자본은 약 70% 감소하였으며, 벤처자본으로 지원받는 기업수는 유사, 기업당 지원규모는 절반수준으로 감소

<유럽의 벤처자본, 2007년을 100으로 기준>



○ 미국에서는 오히려 벤처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단계의 벤처자본이 2013년에는 2007년 이전보다 50% 이상 증가하였음

<미국의 벤처자본, 2007년을 100으로 기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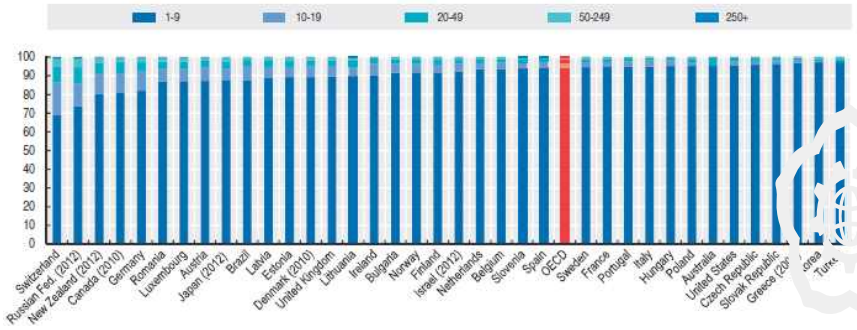
2. 기업수에 대한 구조적 성과지표

(Structural and Performance Indicators on Enterprise Population)

가. 기업규모 지표(Enterprise by siz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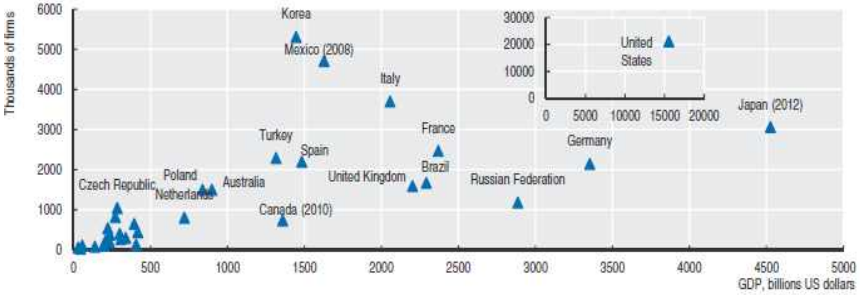
○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70~95%를 차지하고 있음. 서비스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등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OECD회원국들에서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90%이상을 차지함

<기업규모별 기업수 비중, 2011년>



○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수는 증가하지만 소기업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<기업수와 GDP, 2011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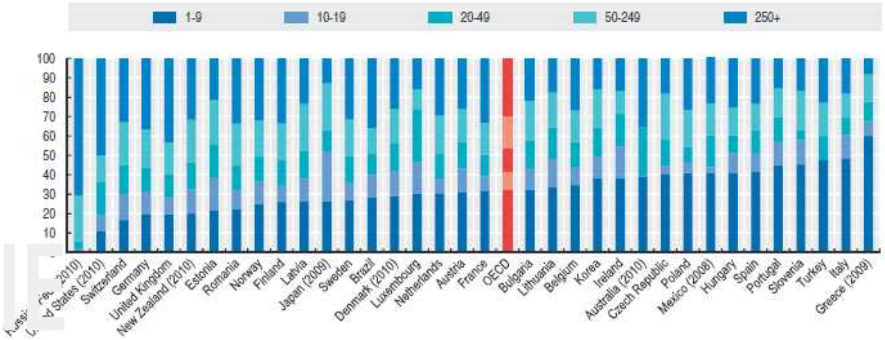


나. 기업규모별 고용(Employment by enterprise size)

○ 기업규모별 고용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임. 소기업(10인 미만) 고용비중은 포르투갈, 슬로베니아, 이탈리아, 그리스 등에서 45% 이상을 차지하지만, 미국, 러시아, 스위스 등에서는 20% 미만을 차지함.

○ 서비스와 건설업에서 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약 42%, 36%를 차지하는 반면, 제조업에서 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약 15%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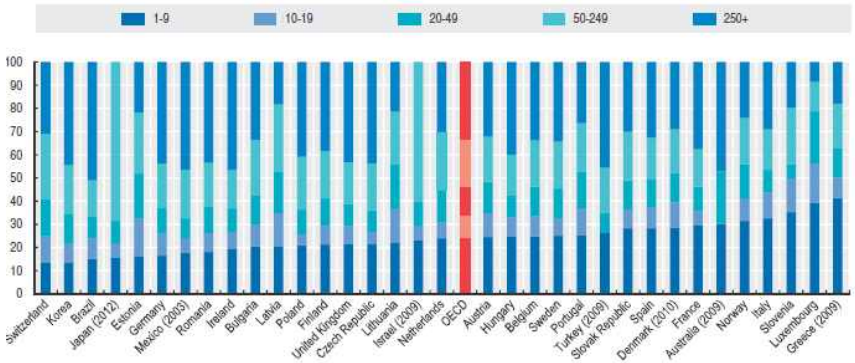
<기업규모별 고용비중, 2011년>



다. 기업규모별 부가가치(Value added by enterprise size)

○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수로 1% 미만을 차지하는 250인 이상의 기업들이 상당한 부분의 부가가치를 생산함. 브라질은 50% 이상, 에스토니아, 그리스, 라트비아,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약 20%를 생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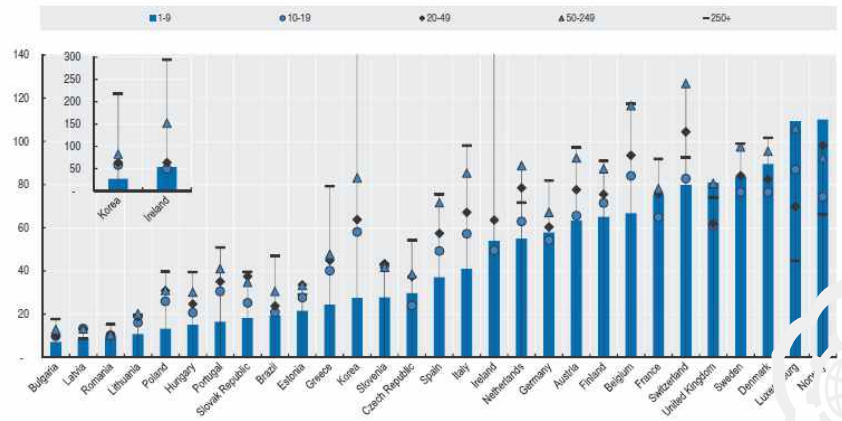
<기업규모별 부가가치, 2011년>



라. 기업규모별 생산성(Production by enterprise size)

○ 일반적으로, 특히 제조업의 경우, 2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, 네덜란드, 스위스 등은 250인 이하의 기업들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<국가별 노동생산성, 2011년, 1000US$/per>



3.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(Enterprise Growth and Employment Cre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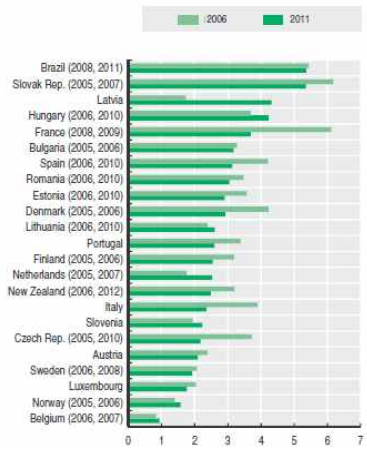
가. 기업생성·소멸에 따른 고용창출·상실(Employment creation and destruction by employer enterprise births and deaths)

○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위기 이전보다 기업생성에 따른 고용창출이 감소하고, 기업소멸에 따른 고용상실은 증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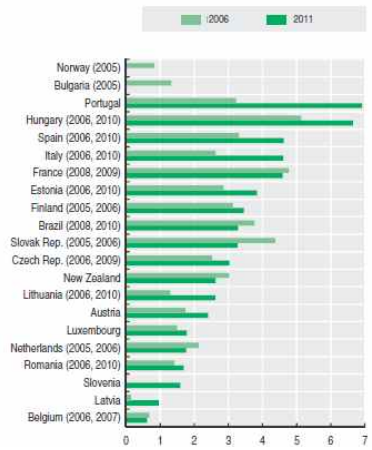
- 다만, 프랑스, 브라질 등은 상대적으로 기업소멸에 따른 고용상실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감소하였음

○ 또한, 제조업보다 건설업, 서비스업에서 경기순환에 따른 기업생성·소멸, 일자리 생성·상실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
<기업생성·일자리창출>



<기업소멸·일자리상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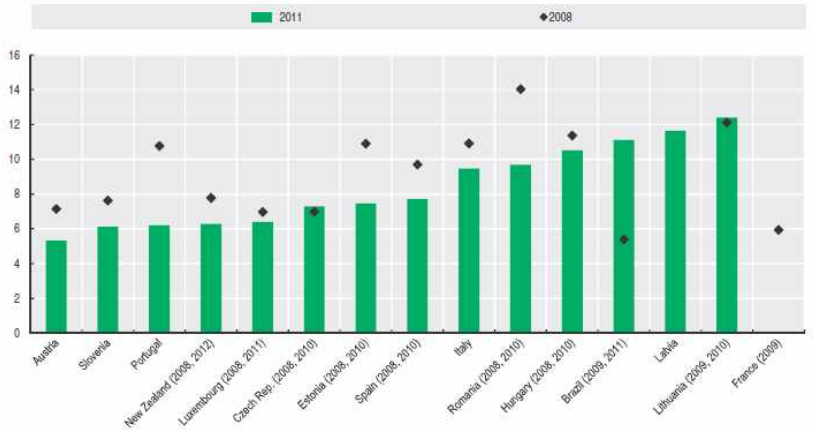


나. 신존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

○ 3년 이내의 젊은 기업은 전체 고용의 약 5~12%를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기업의 고용 기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위기 이전보다 감소함

○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설립시 초기 고용 이후 3년 이내에는 고용변동이 적기 때문에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기업 신규설립이 매우 중요함

<3년 이내 기업 고용기여율(Employment share of young enterprises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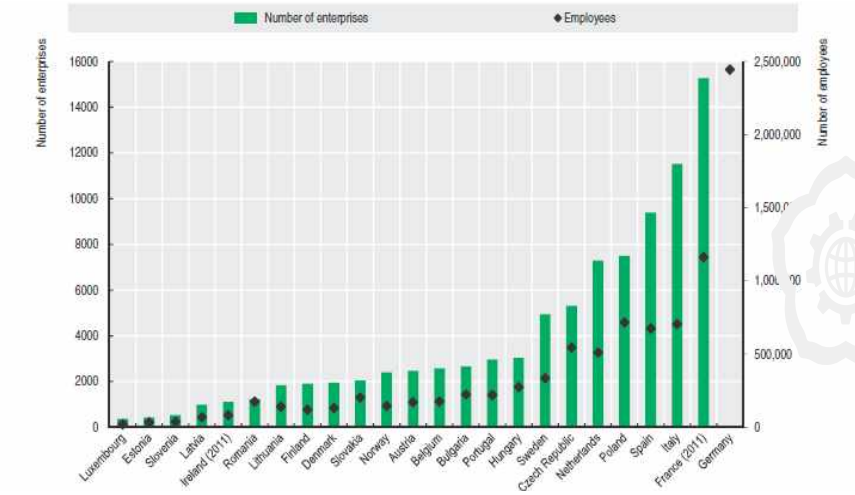


다. 고성장기업(High-growth enterprises)

○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20%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기업은 약 2~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서비스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. 가젤 기업(연간 20% 이상 성장, 설립후 5년 이내)은 약 1%수준을 차지함

○ 고성장 기업은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함. 프랑스의 경우 2012년에 15,000개의 중·고성장 기업이 250만명을 고용함

<중·고 성장기업수와 고용, 2012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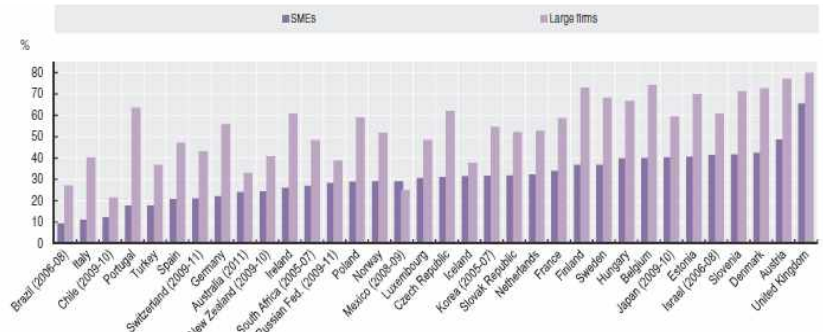
4. 혁신(Innovation)

가. 기업규모별 혁신(Innovation by enterprise size)

○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보다 보다 혁신활동에 관련되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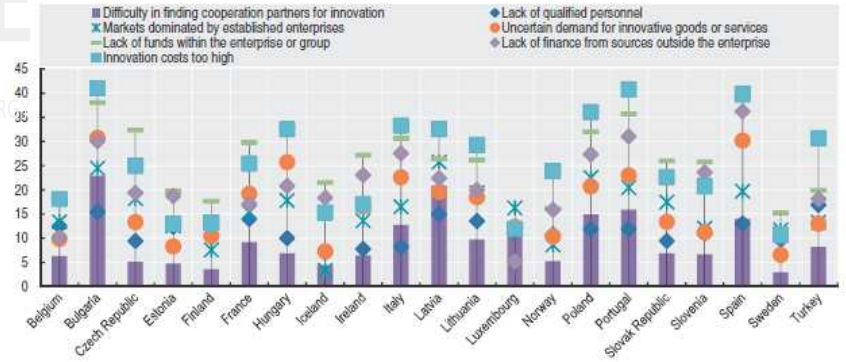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250인 이상 기업들의 50~80%는 파트너기업들과 혁신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250인 이하의 기업들의 20~40% 수준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

<기업규모별 혁신에 대한 협력 비중, 2008~10년>



○ 중소기업이 혁신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원부족과 혁신에 대한 높은 비용인 것으로 나타남.

<소기업(피고용인 : 10~49인)의 혁신 장애 요소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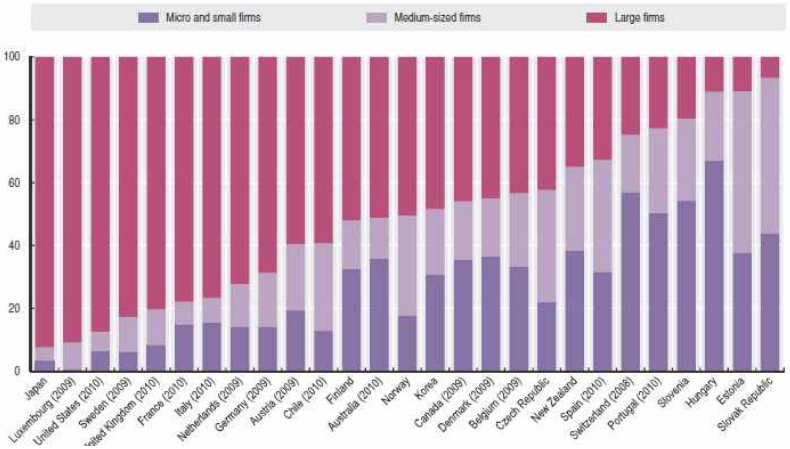


나. 기업규모별 혁신에 대한 공공지원

○ R&D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함.

- 에스토니아, 헝가리 등은 정부지원 R&D의 약 85% 이상이 250인 미만 기업에게 가고 있으나, 미국, 일본, 스웨덴 등은 정부 R&D의 80% 이상이 250인 이상의 기업에게 가고 있음

<기업규모별 정부지원 R&D 비중, 2011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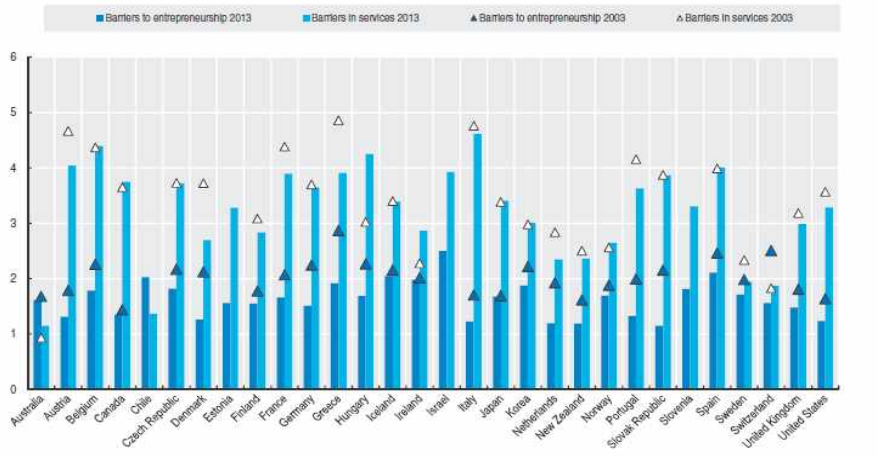


5. 기업가정신 결정 요소(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)

가. 창업에 대한 규제(Regulatory Framework : Starting a busi...ess)

○ 창업 행정부담, 규제·행정 투명성, 경쟁 장애요인 등 기업가정신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많이 개선되었으나,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업가정신 장애요소는 아직 많은 것으로 평가됨

<기업가정신 장애요인, 0~6까지로 구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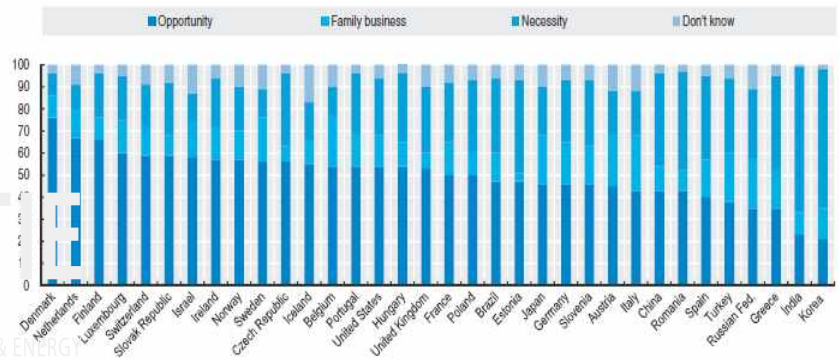


나. 기업창업의 유형

○ 기업창업의 형태를 기회형(opportunity), 가족기업(Family business), 생계형(Necessity) 등으로 구분할 때, 2012년 OECD국가의 약 1/2국가에서 실질적·잠재적 창업의 약 70% 이상이 가족기업인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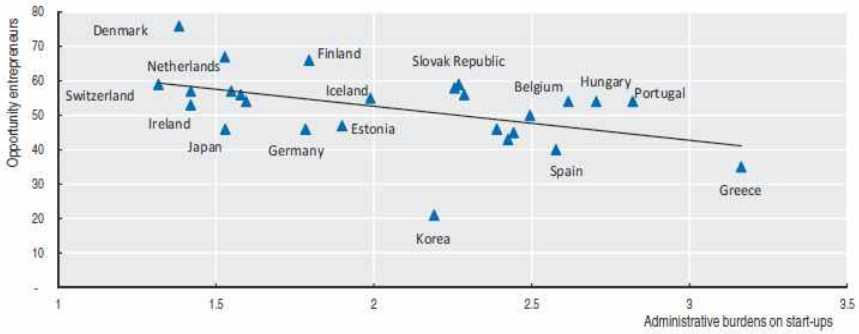
- 중국, 인도, 한국, 에스토니아, 그리스, 스페인 등에서는 생계형창업이 창업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.

< 원인별 창업 비중, 2012년 >



○ 창업에 대한 행정부담이 낮은 국가일수록 기회형 창업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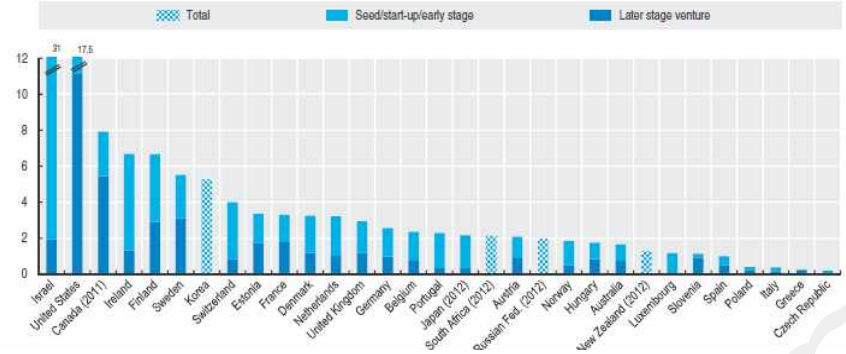
<행정부담과 기회형창업 , 1~6단위로 구분>



다. 금융접근(Access to Finance : Equity Capita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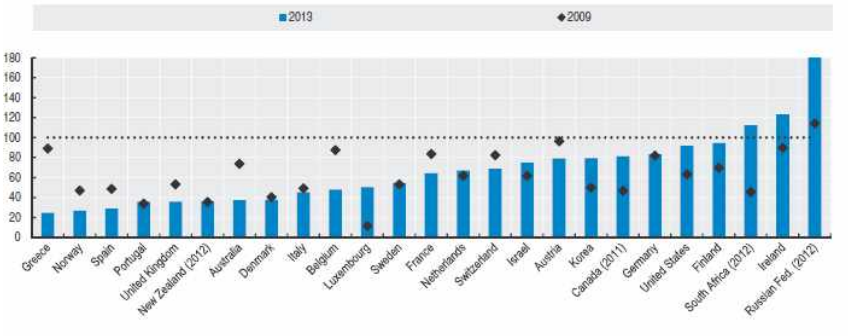
○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벤처자본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(약 0.04%)임. 예외적으로 이스라엘, 미국 등은 GDP에서 차지하는 벤처자본의 비중이 각각 0.3%, 0.2% 수준임

<GDP중 벤처자본 비중, 2013>



○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벤처자본이 2007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벤처자본 추세, 2007을 100으로 기준>



http://www.oecd-ilibrary.org/industry-and-services/entrepreneurship-at-a-glance-2014_entrepreneur_aag-2014-en

※담당:OECD대표부 전응길참사관(원소속:산업통상자원부, eungkil@gmail.com)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